“요일마다 유형 나눠 실전처럼 공부해야”

선배가 알려주는 수능 마무리 노하우

D-44

11월 17일. 2017학년도 수능이 50일도 남지 않았다. 남은 44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입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험생들에겐 하루가 소중하다.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해야할까.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선배들은 이맘때부터 수능 때까지 어떻게 보냈을까. 재학생들의 조언을 들어봤다.

◇**국어, 익숙해질 때까지**=올 수능시험의 최대 변수가 국어 영역이라는 게 입시 전문가들과 현장 교사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통합형으로 출제되는 국어 영역의 경우 6·9월 모의평가에서 낯선 유형의 문제들과 긴 지문 등이 출제돼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가 높았다.

이 때문에 재학생들의 노하우도 주목해볼만하다.

김은서(동신대 한의예과 1년)씨는 “매일 하루에 30~40분씩 요일마다 유형을 나눠 국어지문을 풀었다”고 했다. 하루는 화법·문법과 비문학의 인문·과학 지문, 문학의 현대시, 고전소설을, 하루는 작문·문법과 비문학의 사회·기술 지문, 문학의 고전 시, 현대 소설을 푸는 식으로 모든 유형의 문제를 연습했다는 것이다.

그는 “문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 유형을 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암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암기해서 수능을 봤다”고 했다.

이지선씨 (전남대 의예과 1년)

오답 옆 ‘감사합니다’ 표시 5년치 기출문제 ‘나만의 책’

이지선(전남대 의예과 1년)씨는 국어 영역을 ‘취약 과목’으로 판단, 매일 2시간 이상 투자한 케이스다.

주로, 수능 시험 시간표에 맞춰 오전 시간에 국어를 푸는 습관을 들였다. 화작문과 비문학의 경우 EBS 문제들을 풀고 많은 문제를 접하면서 문제 접근 방식을 익숙하게 만드는 데 공을 들였다는 것이다.

문법같은 경우 같은 종류의 개념강의를 반복해서 들었고 문학은 EBS 연계를 생각하여 변형문제를 풀고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형태로 공부했다고 설명했다.

조한결(전남대 치의학과 1년)씨는 실전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수능 시간표에 맞춰 국어~수학~영어~탐구 순으로 공부하는 방식을 택했다.

국어 영역의 경우 오전 시간대,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하루에 비문학과 문학 지문을 3개 이상 꾸준히 풀었고 빠르게 읽으면서도 문단마다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글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훈련을 했다는 게 조씨가 전한 노하우다.

◇**수학, 기출문제 풀고 또 풀어라**=이지선씨는 수학 기출 문제와 실수를 대비한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씨는 “50일 전 부터는 기출 반, 사설 모의고사 반 형태로 풀었다”면서 “특히 6·9월 모의평가와 수능 시험까지 5년치 수학 기출 문제를 뽑아서 ‘나만의 책’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4점짜리 문제들은 푸는 방법을 2가지 이상 만들어서 그 책에 깔끔이 풀이 방법을 정리하고 다시 생각하는 방법으로 공부했다”고 했다.

이씨는 ‘실수 노트’를 작성해 활용할 것도 조언했다.

“실수노트는 작은 공책에 실수한 내용을 적은 것으로 밥먹을 때마다, 차로 이동할 때마다 봤다”고 했다. 예를 들면 적분이나 미분 계산후 ‘cos 0’ 을 항상 0이라고 하는 실수를 했는데, 이를 실수 노트에 쓰고 매일 보니 cos만 나오면 스스로 긴장하여 실수를 없앨 수 있었다는 게 이씨 설명이다.

조씨도 “30 문항으로 된 실전모의고사를 수능 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재면서 풀고 틀린 문제를 분류, 표로 작성해 활용한 게 도움이 됐다”고 귀띔했다. 여러 차례의 모의고사 결과를 종합해보니 문제 풀이 과정에서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 지와 어떤 문항과 단원을 어렵게 생각했는지를 압축할 수 있는 ‘실패 극복 노트’가 만들어졌고 수능 시험장까지 가져갈 정도로 유용하게 쓰였다는 것이다.

조한결씨 (전남대 치의학과 1년)

공부도 수능 과목 순서대로 시험 나올 만한 유형 파악

김씨는 “개념노트를 만들어 수학을 풀 때 마다 그 개념노트를 참고하여 모든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며 개념 정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 6·9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유형을 파악하여 그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 익히는 연습이 가장 필요하다”면서 “고 3때는 무작정 문제만 풀기 바빴는데 재수를 하면서 시험에 나올만한 유형을 파악하여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고 했다. 손혜성(조선대 영어교육과 1년)씨도 “문제집 혹은 모의고사를 풀면 틀린 부분에 집중해 반복적으로 오답 노트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어, ‘수능 모드’로**=남은 기간, 영어 영역의 공부법을 전하는 재학생 선배들은 한결같이 ‘수능 시험 시간에 맞는’ 공부 방식을 제안했다.

조씨는 점심 시간대에 영어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

“학습량 줄어드는 때 역전 기회 자신 믿고 ‘하던 대로’ 꾸준히”

김은서씨 (동신대 한의예과 1년)

집중력을 키웠다고 했다. EBS 교재의 어려운 지문들을 여러 차례 읽고 정리했으며 모의고사를 풀 때는 쉽거나 적당한 난도의 문제들을 빨리 푸는 대신, 어려운 지문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하는 훈련도 병행했다는 게 조씨 설명이다.

김씨는 꾸준함을 강조했다. 그는 “매일 적어도 영어지문 3~4개를 읽으면서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면서 “빈칸 채우기를 어려워해 빈칸 채우기만 있는 문제집을 사서 꾸준히 풀면서 감각을 키웠다”고 했다.

그는 또 “수능 영어가 시간 싸움이다보니 수능이 50일이 안남은 상황에서 정확하게 빨리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손혜성씨 (조선대 영어교육과 1년)

문제집 풀며 틀린 부분 체크 오답 노트 수시로 보는 습관

이씨도 “점심을 먹고 바로 EBS를 정리하면서 관련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공부했다”면서 “점심 뒤 졸린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영어 시간대에 맞춰 생체리듬을 만들어 놓는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씨도 매일 30분이상씩 꼬박꼬박 푸는 것을 목표로 수능 시험까지 영어를 공부했다고 했다.

이외 탐구 과목의 경우 김씨는 “탐구는 개념을 외우면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머지 절반은, 6, 9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유형을 파악하여 그 유형을 익히는 연습”이라고 했다. 이씨는 “50일 전부터 매일 꼬박꼬박 모의고사를 23분 안에 완벽히 푸는 훈련과 ‘최근 3년치 6월, 9월, 수능’ 기출 문제를 파란색 팬으로 풀면서 ‘분석’한 ‘나만의 기출 문제집’을 활용했다”고 했다.

◇**여유갖고 ‘하던대로’ 꾸준히**=재학생 선배들은 여유를 갖고 하던대로 꾸준한 공부 자세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씨는 “50일도 남지 않은 이 시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치고 공부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때”라며 “그만큼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성적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씨도 “50일 밖에 남지 않으면 문제 하나만 틀려도 불안하고 초조해 질수 있지만 신경써야 할 것은 ‘맞은’ 문제가 아닌 ‘틀린’ 문제”라고 했다. 그는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 틀린 표시 옆에 ‘감사합니다’라고 적어라”고 했던 학교 선생님의 조언을 들면서 초조함 대신, 틀린 문제를 공부하면서 실력을 쌓아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 김씨도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믿으며 수능을 준비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작년 학교 부적응 중퇴 1908명

전체 중퇴생 2682명

지난해 광주·전남 초·중·고등학생 2682명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4만7070명이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8일 ‘2015학년도 학업중단 학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주·전남 초·중·고교 학업 중단 학생은 2682명(광주 1386명·전남 1296명)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초·중·고교 재학생 4만7070명(0.77%)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생 중 광주에서는 질병, 해외 출국 등을 제외한 부적응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946명이었고 고등학생이 6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에서도 부적응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962명 중 고등학생이 7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학교 부적응 요인이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 나올만하다. 전남에서 부적응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수의 경우 전년도(1203명)에 견줘 20.0%가 감소, 울산(27.0%) 다음으로 감소 폭이 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학교급식 만족도 전국 1위

지난해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전반적 만족도가 86.3점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의 만족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교육부는 연세대 양일선 교수팀이 전국 초·중·고 204개교의 학생 6120명, 학부모 2040명, 교직원 2040명, 영양교사 204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일 밝혔다.

광주에서는 초·중·고교에서 각각 4개교를 뽑아 학생 360명, 교직원 120명, 학부모 120명, 영양사 12명 총 61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급식품질 속성에 대한 수행도 평가 결과, 광주지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는 ‘음식의 맛’(92.5점), ‘음식의 적정온도’(91.9점), ‘급식의 영양’(94.5점), ‘급식위생’(94.0점), ‘식재료의 품질’(93.9점) 등 13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광주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의 경우 13개 전 분야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전남의 경우 87.1점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광주는 급식 환경, 급식 질, 급식 운영 등 급식 품질 요인에 대한 수행도 평가에서도 각각 92.6점, 92.9점, 93.4점을 받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게 평가됐다. 전남은 급식의 질(87.0점), 급식운영(86.8점), 급식 환경(87.6점) 등을 받았다.

광주교육청은 지난 2014년 76.3점을 받아 전국 17위로 꼴찌를 기록했다가 이번에는 1위에 오르는 등 ‘깜짝’ 성과를 냈다.

한편, 광주교육청측은 “학교급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설문에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을 분석하고 개선 보완하도록 노력했다”면서 “건강한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탈의실 없는 학교’ 광주·전남 90%

광주·전남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탈의실이 없는 학교가 9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충주시)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학생 탈의실 설치 현황’에 따르면 탈의실이 없는 광주·전남 학교는 89.7%, 전남은 89.8%에 달했다.

광주는 전체 117개 학교 가운데 105개 학교(남학교 14·여학교 13·남녀공학 78개)가 탈의실이 없었고 전남에서는 423개 학교 가운데 380개가 탈의실이 없었다.

남녀공학의 경우 90%에 가까운 학교(광주 78·전남 335)가 탈의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교육단신

전남대, 내일 수산해양포럼

전남대는 오는 5일 오후 4시30분 여수캠퍼스 수산해양관에서 신우철 완도군수를 초청, ‘수산 융복합 6차 산업화’를 주제로 제 10회 수산해양 포럼을 연다.

목포대, 11일부터 인문아카데미

목포대는 오는 11일 오후 7시 목포대 대회의실에서 이헌종 목포대 고고인류학과 교수가 ‘국내 서남해안 일대 초기 인류 등장과 바다개척’이라는 주제로 ‘인문 아카데미’ 강좌를 진행한다. 인문아카데미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지리산 온천지구 내, 호텔급 모텔, 사정상 매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다용도 개발 가능**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감정가 - 14억 (2016. 7월 감정)**
- 1순위(은행) - 6억 3천만원 대출
  2순위(개인) - 1억
- **매매 - 협의,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